

Paminy

2015 1월~3월 vol.08



완생을 꿈꾸는 미생들을 위하여
을미년 새해를 맞으며
침묵하는 창

고객님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 MATE



vol.08
2014 Jan. Feb. Mar.

CONTENTS

Pacom Family
pacom



- | | | |
|----|--------|--------------------------------------|
| 02 | 칭찬릴레이 | 한경숙 김수민 한혜옥 김중찬 |
| 03 | 신년사 | 2015 을미년 새해를 맞으며 |
| 04 | 소감문 | 청춘은 말한다 |
| 05 | 공감 | 완생을 꿈꾸는 미생들을 위하여 |
| 06 | 북페어 | Frankfurt Book fair 방문기 |
| 07 | 북페어 | 러시아 북페어 방문기 |
| 08 | 공감 | 침묵하는 창 |
| 09 | 공감 | 어머니의 우주 GRAVITY와 아버지의우주 INTERSTELLAR |
| 10 | 팩컴피플 | 팩컴의 모양따기 달인! 톰스 김성태 기장 |
| 11 | 동호회소식 | 제1회 팩컴 탁구 동호회 공식대회 |
| 12 | 힐링로드 | 경주로 출발 |
| 14 | 팩컴파트너 | (주)아모스 |
| 15 | 부서소개 | 팩컴을 지키는 중철팀을 소개합니다! |
| 16 | 이모저모 | 팩컴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
| 17 | 문화공간 | |
| 18 | 쉬어가는 곳 | 재미로 보는 2015년 띠별 운세!! |
| 19 | 찰칵소리 | |
| 21 | 팩컴뉴스 | |

* Family (Pacom Family)는 팩컴코리아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한 사보입니다.

발행처 팩컴코리아 | 발행일 2015년 1월 2일 | 발행인 김경수 | 편집장 황철원 | 기자 이원성 신규현 박미선 주선영 조원근 이운정 | 교정·교열 이가진 | 디자인 김수희 | 인쇄 팩컴AAP

패밀리 칭찬 릴레이



제본사업본부
한 경 숙



한경숙
사원은요~

본인이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술선수범해서 본인 업무에 임하십니다. 같이 일을 하던 동료 한 명이 그만 두고 혼자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오랜 경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거 같습니다.



팩검 관리부
김 수 민



김수민
사원은요~

조용한 듯 하면서도 강한 면모를 갖춘 거 같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AAP 관리본부 경리 일을 보는 사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그 빈 자리를 본인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완벽하게 채워 놓은 거 보면 인정할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 같습니다. 회사 모든 동료들과 두루 두루 잘 지내고, 매일 상냥하게 웃는 모습에 얘기하는 상대방조차도 미소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해외영업부 도전팀
한 혜 옥 차장



한혜옥
차장님은요~

오픈된 마인드로 후배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음을 달래 주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짧은 대화 속에서도 힐링이 되어 주시는 한혜옥 차장님~ 숙련된 노하우로 꼼꼼한 업무 진행과 본인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어떤 협조 요청에도 흔쾌히 웃으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패키징이 어질러 있어도 누굴 시키기보다 술선수범하여 정리하시는 모습 또한 인상적입니다. 후배들에게 오랫동안 귀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D실 연구소
김 종 찬



김종찬
사원은요~

항상 POD실을 방문하면, 웃는 얼굴로 눈을 맞추고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되려 먼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질문을 던져 주시는 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볼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성품도 좋은 거 같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집니다. 좋은 친구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2015

올미년 새해를 맞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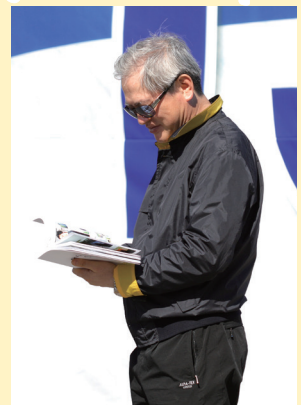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2014 “청말의 해”에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사업 계획들이 제대로 성취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경영자로서 심각하게 고민과 자책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 때문이었다고 애써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모든 결과가 사람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이든 남이든 그런 감정에 매이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책감과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시 힘을 내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서 감사한 마음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들을 겪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목표가 있다는 것, 간밤에 아무런 사고 없이 눈을 뜬 것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게 용기를 내라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에너지가 살고 자신감도 생기고 기쁨도 생긴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정언명령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결코 풀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천문학적으로 풀여놓은 달러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고, 여타의 모든 나라들도 사정이 좋지만은 않고, 우리나라도 수많은 난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건이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의 급감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 우리 팩컴의 사정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쇄시장의 구조적 침체상황과 맞물려, 작년처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대형거래선의 이탈과 동종업계의 덤핑공세가 올해에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책과 고민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 팩컴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고객, 동료, 가족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새롭게 충전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올미년, “푸른 양”의 해라고 합니다. 착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동물인 양은 그 본성의 순수함과 착함으로 행운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어린 양”은 요즘의 의미로 보면 일반 대중을 의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의 역량보다는 네티즌, 소비자, 시민 등으로 표시되는 다중의 지혜와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은 겉보기에는 유순하고 약한 동물 같지만, 일단 무리를 지어 고개를 들면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팩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한 방향을 지향하며 함께 변화해 갈 때, 2015년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팩컴가족 여러분, 2015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전과 보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팩컴코리아(주) 대표이사 김경수

청춘은 말한다

10대 고등학생이 근무하게 되면서 팩컴의 근무 평균 연령대를 확연하게 낮춘 고등학생 직원의 근무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2개월 동안 실습을 마치고, 현재 3개월째 제본사업본부에서 정식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3명은, 항상 모든 분들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합니다. 딱 보아도 앳되어 보이는 얼굴로 예의를 반듯하게 갖춰 인사를 하며, 항상 웃음 띤 얼굴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본사업본부 무선 한석준

어느덧 여기 팩컴AAP에서 근무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학교와는 또 다른 공간,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시작을 하여, 3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느낌과 생각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가 친근하게 다기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봅니다. 책을 그냥 보고 읽기만 하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책은 이렇게나 많은 공정을 거쳐야 만들어 진다는 사실, 여기에서 일을 하기 전엔 몰랐던 일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 모든 게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인정을 받고 싶단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선에 계신 정대성 과장님께 기계를 열심히 배워서, 누구보다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무선기장이 되어 보겠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제본사업본부 톰슨 정해인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거라 많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모두들 도와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일을 하게 되었고,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배운 것이 많은 거 같습니다. 기계를 만져 보고 직접 작동도 시켜 보고,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웠지만, 톰슨에 계신 김성태 기장님의 도움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님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수월하게 기계의 흐름을 익힐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만져 보고 작동도 시켜 보니 재미를 느끼고 기계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 보려고 합니다.

제본사업본부 정합 김대재

팩컴AAP에서 실습으로 2개월을 근무하고 이젠 정식 사원으로 3개월을 다니고 있는 김대재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두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는 가끔 실수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혼을 내기보단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내가 잘 할 수는 있을까? 나와 이 일이 적성에 맞을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적응은 잘 할 수 있을까?' 등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쓸모 없었던 고민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제 이 곳 제본사업본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보람 있고 뜻 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뭐든 물어 보라고 하시며, 물어 볼 때마다 주옥 같은 설명으로 저를 이해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모님(같이 근무하시는 아주머님들), 대리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처럼 뭐든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저희 회사 모든 분들의 노력은 정말 끝이 없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P 신규현

‘완생(完生)’을 꿈꾸는 ‘미생(未生)’들을 위하여

지난 하반기 직장인들이 모이면 했던 이야기 중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화제는? 아마도 ‘너 이번 주 ‘미생’ 봤니?’ 가 아닐까요? 얼마 전 tvN에서 종영된 ‘미생’은 포털 사이트 daum에서 2012년부터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을 토대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미생’이란 ‘완생(完生)’으로 가기 전의 인생(人生)이란 뜻입니다.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레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주인공은 바둑을 잊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바둑으로부터 얻은 통찰이지요.

- 왜 ‘미생’이 인기였을까? -

‘미생’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사실적인 직장생활의 묘사와 함께 가감 없이 그려진 생생한 캐릭터 때문일 것입니다. 냉정한 사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털썩 입사한 장그레, 남자들의 세계에 등장한 알파걸 안영이, 엘리트로서 살아왔지만 회사에서는 맘 붙이지 못하는 장백기, 일처리에 있어서는 냉정하지만 때론 푸근한 아저씨 같은 오과장, 둥글둥글한 외모만큼이나 순수하고 특유의 우직함이 매력인 김대리 등 ‘미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 한 명쯤 있을 법한 사람들 같지 않나요?

‘미생’에 나온 명대사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기초 없이 이론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게 된다.”

“알면서 하니까 실수인 거야. 같은 실수 두 번 하면 실력인 거고.”

“바둑에 ‘그냥’이란 건 없어. 어떤 수를 두고자 할 때는 그 수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

어야 해. 그걸 ‘의도’라고 하지.”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남들한테 보이는 건 상관없어. 하려 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린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른이 되는 건 ‘나 어른이요’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꼭 할 줄 아는 건 꼭 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의 뜨거웠던 오늘을 기억해라!”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다.”

“다들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겨울입니다.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다는 뉴스에 벌써부터 걱정이지만 문득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결코 춥지 않은, 넉넉하고 따뜻한 일 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늘 첫발을 내딛던 초심(初心)을 잊지 않는다면 매일이 새롭고 좋은 결과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팩컴 가족 여러분도 올 겨울, 좀 더 단단해지고 다가오는 2015년에도 힘차게 뛰어봅시다! 모두 화이팅! **P**이가진



2014년 Frankfurt Book fair 방문기

지난 10월, 독일에서 열리는 Frankfurt book fair에, 김상광 부장, 국종석 부장, 조지원 사원, Juergen Gutzeit, Lawrence Dagadu가 Pacom을 대표하여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도서 박람회로, 출판 업계 뿐만 아니라, 도서 관계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예술가, 멀티미디어 공급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최근 출판 미디어의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기도 한 곳입니다.

올해는 Samsung에서 후원하여 개최된 만큼, Samsung만의 hall이 따로 크게 열려, Pad 및 Samsung의 display에 대해 홍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e-book에 대한 관심 및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book에 대한 전략은 Samsung과 같은 업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경쟁사인 Toppan에서는 같은 printing company 이면서도, e-book에 대한 사업도 활성화 하는 모습을 PT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PT가 끝나고 찾아간 Toppan의 hall에서는 아이패드를 통해 e-book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 쪽 부스 중, 프랑스의 경우는 한 예로 와인 관련 서적은 와인 모양으로 목형을 따서 만든 책도 있어서 unique한 제본 형태의 책으로 어필 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스 및 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지 거래선인 Taschen에 김상광 부장님과 구 이사님이 함께 방문하여, Production director인 Sebastian과 미팅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현지에 나가는 일이 많지 않는 만큼, book fair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을 만들어 현지 거래선에 사전 약속과 함께 방문하여 business를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Book fair를 통해 인쇄 및 출판 시장의 변화를 직접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에는 Taschen과 함께 business를 돈독히 하는 수확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기사를 마칩니다. **이윤정**



러시아 북페어 방문기

올해는 Frankfurt book fair에 앞서, 9/3~9/7 4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book fair에 김상광 부장, 국종석 부장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모스크바 북페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모스크바 북 페어는 어떤 곳인가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book fair로 25개국, 300여 개의 출판업계 회사들이 모여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국제 도서전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대한 인쇄문화협회에서 공동부스 및 통역원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인쇄업체 (PACOM, 아시아프린팅, 타라, 프린피아)가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북 페어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러시아는 차갑고 무뎡뎡할 것 같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다른 국가의 도서전과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의 북페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 현지어 구사가 가능하거나 현지인을 채용한 중국, 중동, 러시아 인근의 인쇄업체들과 달리, 한국 업체들은 통역을 통해서 듣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인쇄업체의 상담 요청에도 비교적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것이 참 좋았고, 한국에도 인쇄물 수출업체가 있다는 것에 다소 놀랍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는 “삼성=전자업체”, “현대=자동차업체” 등과 같은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북페어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다른 북 페어에서도 책을 현장 판매하기도 하지만, 유독 이 곳에서는 현장에서 도서를 구입하려는 일반 입장객들의 수가 무척 많아서 놀랐습니다. 또 하나, 올해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 유럽의 출판사들이 대거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일 전시장으로 이루어졌지만, 5일 동안 많은 수의 입장객(약 22만 명)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내년 2015년 북 페어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PACOM이 러시아 북 페어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 분들을 위해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북페어 참가인 만큼, 사전에 북페어에서 접촉 가능한 업체와 현지에서 방문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부단히 찾아보는 일이 모스크바 도서 전시회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및 유럽의 출판사들의 참가가 예상되므로 사전 준비를 많이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러시아 출판사들이 러시아어가 가능한 주변 국가들과 러시아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어 구사가 유창한 요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국종석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북페어에서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P이운정

침묵하는 창

항철원

나:

창밖의 세상이 두려워
늘 굳게 닫아 두었던
새카만 내 마음의 창
창 밖으로부터 들려 오는 편견
그들과 다르게 나를 보는 시선
나는 그들에게 괴물이었어
세상이 나를 가두어 버린걸까?
내 스스로 갇혀 버린걸까?
꼭 막힌 어두운 내 안에서
나도 모를 두려움으로 뽕뽕 얼어갈 때
늘 외롭고 춥고 아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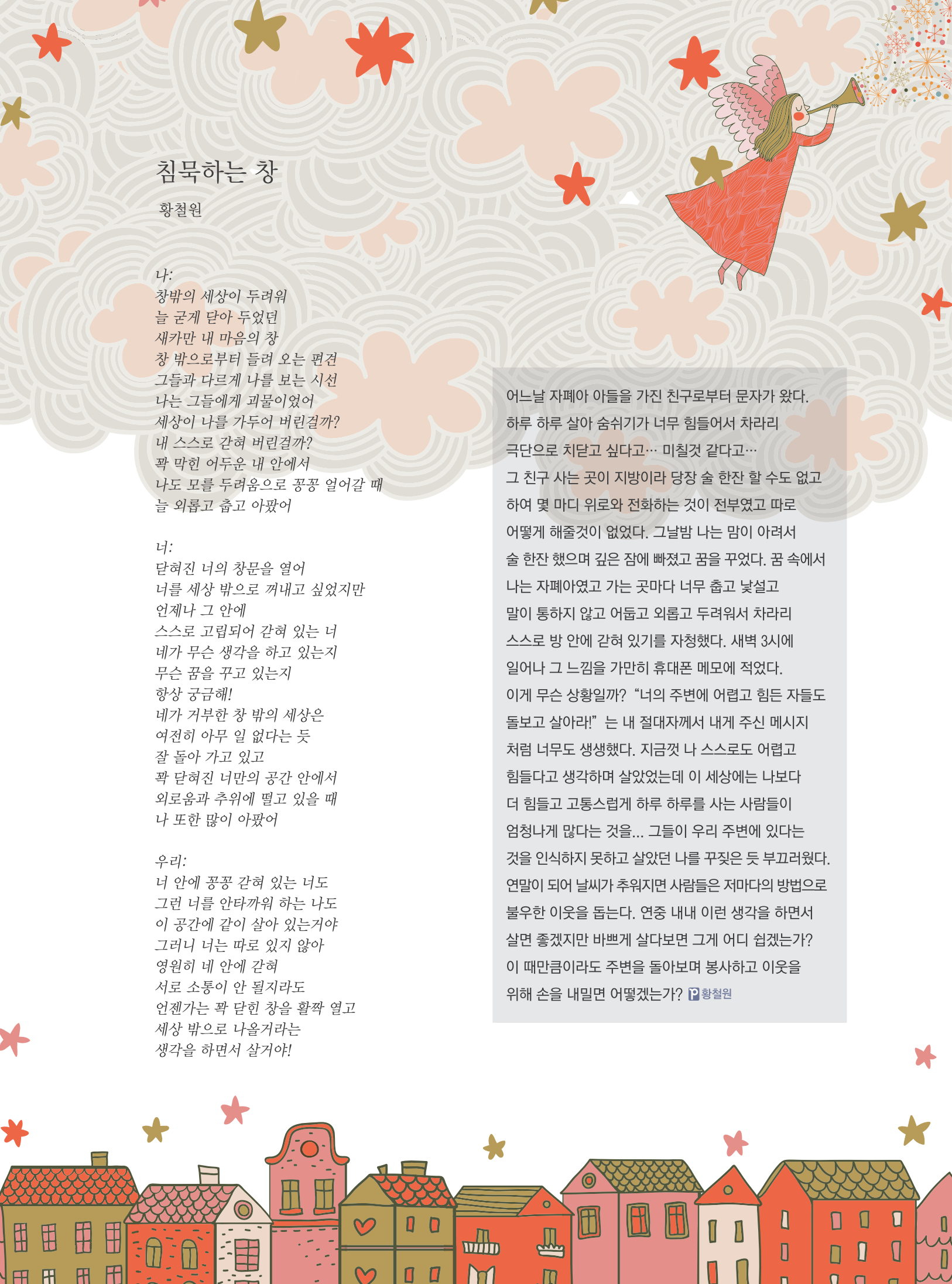
너:

닫혀진 너의 창문을 열어
너를 세상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 안에
스스로 고립되어 갇혀 있는 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
네가 거부한 창 밖의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 가고 있고
꼭 닫혀진 너만의 공간 안에서
외로움과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나 또한 많이 아팠어

우리:

너 안에 뽕뽕 갇혀 있는 너도
그런 너를 안타까워 하는 나도
이 공간에 같이 살아 있는거야
그러니 너는 따로 있지 않아
영원히 네 안에 갇혀
서로 소통이 안 될지라도
언젠가는 꼭 닫힌 창을 활짝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거야!

어느날 자폐아 아들을 가진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
하루 하루 살아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극단으로 치닫고 싶다고... 미칠것 같다고...
그 친구 사는 곳이 지방이라 당장 술 한잔 할 수도 없고
하여 몇 마디 위로와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고 따로
어떻게 해줄것이 없었다. 그날밤 나는 맘이 아려서
술 한잔 했으며 깊은 잠에 빠졌고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자폐아였고 가는 곳마다 너무 춥고 낯설고
말이 통하지 않고 어둡고 외롭고 두려워서 차라리
스스로 방 안에 갇혀 있기를 자청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그 느낌을 가만히 휴대폰 메모에 적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너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도
돌보고 살아라!” 는 내 절대자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처럼 너무도 생생했다. 지금껏 나 스스로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루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꾸짖은 듯 부끄러웠다.
연말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연중 내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그게 어디 쉽겠는가?
이 때만큼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면 어떻겠는가? **P 항철원**



어 머 니 의 우 주 G R A V I T Y 와 아 버 지 의 우 주 I N T E R S T E L L A R

2013년 10월에 개봉한 '그래비티', 그리고 2014년 11월에 개봉한 '인터스텔라'. 1년 1개월의 시간을 두고 개봉한 두 영화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우주라는 공통의 배경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영화를 함께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래비티'의 우주는 어머니의 우주, '인터스텔라'의 우주는 아버지의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영화 '그래비티'의 주인공 스톤 박사는 딸을 잃고 우주로 도피한 어머니였습니다. 사고로 딸을 잃은 후, 일이 끝난 저녁이면 멘트 없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정처 없이 드라이브하며 허무한 죽음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내고 있었죠. 그녀가 NASA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우주로 떠나게 된 것은 마치, 지구에서 중력을 잃고 배회하다 우주로 떠올라 간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던 스톤 박사에게는 지구에 남겨 놓고 온 것도, 지구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동료 매트와 단 둘이 살아 남아 지구와의 통신도 끊긴 채 우주를 유영하게 되었을 때, 매트는 그녀에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었고, 마음의 방향을 지구로 이끌어 주어 그녀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거대한 어머니의 우주에서 다시 태어난 스톤 박사는 삶의 무게와도 같은 중력을 두 발로 버티고 서며, 마침내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게 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쿠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우주로 떠난 아버지입니다. 기상이변으로 황폐화된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갔고, 우주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은밀히 NASA를 재건하여 인류를 우주로 이주시킬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사랑하는 딸 머피가 눈물을 흘리며 그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쿠퍼는 사랑하는 딸과 나머지 가족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우주선에 몸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에는 신인지, 미래의 인류인지, 혹은 오지랖 넓은 외계의 존재인지 알 수 없는 5차원의 존재가 열어준 웅홀이 열려있어, 인류를 구하기 위해 떠난 그들을 블랙홀이 있는 머나먼 은하로 이끌어 줍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동료들을 잃게 되고 쿠퍼 자신의 목숨도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가족을 향한 간절하고 절실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블랙홀을 통해 딸 머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성공합니다.

드넓은 우주와 외계의 행성들, 거대한 블랙홀이 영화의 화면을 압도하지만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쿠퍼의 동료 아멜리아가 한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란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만 박사는 지구에 남기고 온 것이 없어야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은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지나고 201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로 보내고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 하며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며 소통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힘으로 삶의 무게를 버티며 세상을 향해 두 발을 내딛어야겠습니다. **P 박미선**



팩컴의 모양따기 달인! 툼스 김성태 기장

책의 종류와 그에 따른 업무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책 모양이 아닌 특이한 모양이 나오도록 하거나, 책을 잘 접히도록 해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평소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는 '툼스'의 '김성태' 기장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 보실까요?

후임에게 업무적으로 많은 것을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던데요~

다른 분들도 다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후임이 제 말을 잘 따라 주기도 하고, 곧잘 배운 대로 빠르게 습득해서 그런지 일을 잘 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 좀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2015년은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시나요?

제가 몇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곤 하잖아요. 그 계획한 일들 미루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요즘 체력이 떨어진 것을 느끼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단련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을 시작하였나요?

탁구요 ㅎㅎ 회사 분들 중에서 탁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연습해서 지도 순위권 안으로 진입하려고요.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꼭 계획한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운정

우선, 이 사보가 나올 때 즈음에는 이미 2015년을 맞이하는 첫 날일 텐데요, 기장님께 201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보람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PACOM에 온 지 1년 반 가량이 되었는데, 정신 없기도 했지만 제 나름 직장의 안정감과 함께 생활에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툼스의 일은, 칼날을 주로 다루는 일이 많다 보니, 다치시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올해는 일에 능숙하셨던 분들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량은 많아졌는데 시간은 여유가 없다 보니, 계속 차이기만 했던 때가 있어 많이 지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저에겐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혹 다치긴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제1회 팩컴 탁구 동호회 공식대회



총 16명의 탁구 동호 회원 분들이 A, B그룹으로 나뉘어서 개인 및 복식전을 치렀습니다.

A그룹에는 실력이 조금 우월한 탁구 회원 분들로, B그룹에는 실력이 조금 덜 우월한 탁구 회원 분들로 나뉘어 먼저 개인전을 치렀는데 정말 B그룹에도 A그룹 못지 않는 엄청난 열정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띤 개인전을 치른 결과 A그룹에는 이번 없이 많은 회원 분들이 예상했듯 체본사업본부 무선팀의 정대성 과장이 우승을 하게 되었고, B그룹에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해외영업 도전팀 조원근이(제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모든 회원 분들이 놀라셨고 마지막 결승에서 만난 POD실 김성기 팀장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니폼을 선사해 주신 해외영업 창조팀 홍석준 대리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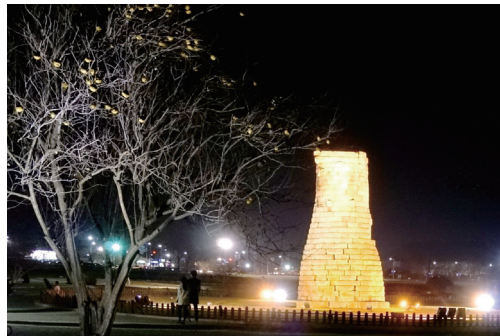
개인전을 모두 치른 후 다시 복식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팀 구성은 공평하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A그룹의 우승자인 정대성 과장과 조원근이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개인전에서 자신의 기량과 모든 열정을 불태운 결과 결국 둘 다 결승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식전은 서로 호흡이 절묘하게 잘 맞았던 POD실 김성기 팀장과 체본사업본부 접지팀 박종천 대리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제 2회 대회에도 많은 기대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조원근





경주로 출발~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던 학창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요? 여전히 학생들의 수학여행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아련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밝은 새해 맞으세요.

KTX를 타니 2시간 만에 신경주역에 도착했다. 와우~ 할머니처럼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자전거를 대여하여 유적지를 돌아봤어야 했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자전거를 대여할 수 없었다. 여행 코스를 변경하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불국사를 먼저 관광하기로 결정했다. 경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쯤 달리니 불국사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석탑들을 보러 대웅전으로 향했다. 석탑인 다보탑과 석가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한국의 다른 석탑들과 다르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다보탑은 예전에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현재 석가탑은 복원 중이라 대웅전 앞뜰에 있는 다보탑과 조화를 이루는 모

습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천천히 둘러본 불국사의 아름다운 선이 눈에 들어왔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불국사를 보니 신라인들의 높은 품격과 일부 유실된 문화재에서는 일제시대의 수난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하여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사라진 문화재를 되찾고 불국사가 아름답게 복원되길 기도하며 발길을 돌렸다.

‘경주’ 하면 안압지의 야경을 빼놓을 수가 없다. 많은 블로그를 통해서 야경의 아름다움을 맛본지라 해가 저물자마자 안압지로 달려갔다. 안압지의 ‘동궁과 월지’라는 곳이 야경의 포인트인데, 이곳은 신라 왕궁의 별궁터이며 다른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연못에 비친 동궁과 월지는

환상 그 자체였다. 어느 각도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도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었다. 옛 선조들처럼 이곳에서 탁주 한사발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풍경이기도 했다. 대신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며 선조들의 잔치 모습을 상상하며 안압지를 빠져나왔다. 안압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첨성대를 볼 수 있다. 첨성대를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떻게 천문현상을 관찰했는지 신기하기만 했다. 그 외에도 대릉원, 천마총 등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곳을 통칭해서 '경주역사유적지구' 라고 한다. 역사지구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원 같았다. 산책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진 길, 꽃밭들, 넓은 잔디밭에 나와 연날리기 하

는 사람들 속에는 우뚝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고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 신비스러웠다.

이번 경주여행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아픈 과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

팩کم 가족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 잘 세워서 내년의 달라진 나의 모습, 더 나아가 후손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봅시다!^^ **주선영**



Pacom's Partner

(주)아모스 (뜻: 무거운 짐을 진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팩컴코리아 사보에 팩컴의 파트너로서 (주)아모스를 소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에는 “(주)아모스” 라는 회사명보다는 “딱풀” 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 (주)아모스(대표 이은성)는 1984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30년 전 당시 사무용, 문구용 풀은 물풀 위주였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고체 풀(상표:딱풀)이 초기에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짧은 시간에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사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렸고 해외 시장 마케팅에 치중하였습니다.

수출 시작 후 회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꾸준한 품질 연구와 생산 설비 자동화, 다양한 신제품 개발로 해외 문구/완구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현재 유럽/아시아/북, 중 남미를 주요 시장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납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매진한 결과 2014년에는 3,000만불 수출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수출에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도 스티커 물감 글라스테코, 2002년도 프리미엄 크레파스 파스넷, 2005년 탕탱 아이클레이 등 다양한 제품 출시로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놀이 교육 문화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있으며 2014년 파스넷(크레파스 물감) 색연필을 출시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문구 산업은 유럽 및 일본산 고급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래의 전통적인 문구 제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여러 제품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유명 브랜드 문구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는 창업 초기부터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도 독일, 홍콩 등의 해외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체 해외 시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시장 수출 시에 요구되는 품질 인증 마크 CE, ASTM, CPSIA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품질 경영을 하며 ‘AMOS’ 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팩컴코리아는 (주)아모스의 오랜 고객이자 공급업체로서 아모스는 우수한 품질의 글라스테코(스티커 물감) 제품을 팩컴코리아에 납품하고, 팩컴코리아는 글라스테코를 이용한 완제품 책을 만들어 미국, 유럽, 남미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는 아모스에 우수한 품질의 PAPER MATERIALS를 공급해 주는 훌륭한 공급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두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사보에 아모스를 소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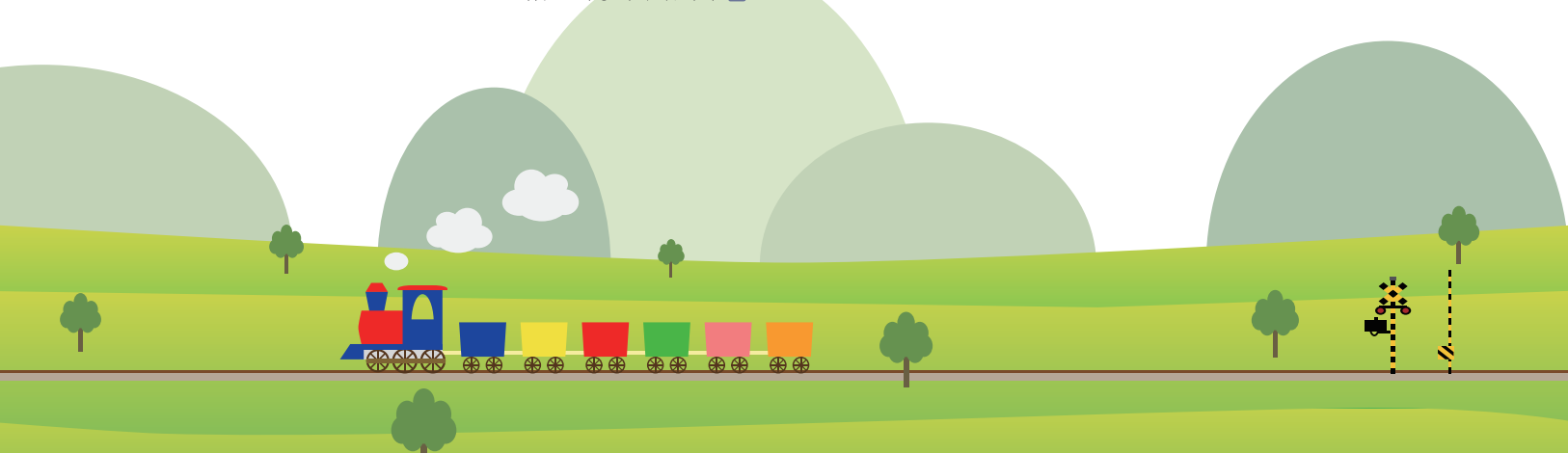
팩컴을 지키는 중철팀을 소개합니다!



중철팀을 방문하면 기차 소리처럼 들려오는 소리에 좌우를 쳐다보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웅장한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철팀은 2개조,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마 머리가 잘 어울리는 훈남 안준 과장을 선두로, 과묵하게 중철팀을 지켜주는 최광식 대리는 퇴근 후 휴일이면 야구장, 당구장 등 작은 공과 함께 여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2014년 가을 정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열심히 근무 중이신 박선희 님, 아무 말 없는 듯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로 웃음을 주는 한준희님,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제본 전 층을 오가는 신희선 님, 말없이 굿은 일 마다하지 않고 중철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동수 님, 중철팀의 예능담당으로 항상 웃음을 전달하는 서형미 님, 또한 정년 후 계약 연장으로 7년 여 동안 근무를 하시고 정든 팩컴을 떠나시는 송임순 님은 여장부로서 젊은이 못지 않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중철팀은 구성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작업 오더가 떨어지면 팩컴의 명품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최강의 팀입니다. **이원성**



팩컴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2014년 10월 16일 안산공장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 열려





2014년 10월 16일은 팩컴그룹 창립 15주년이었다. 이에 안산공장에서 기념식 및 산행,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이른 새벽부터 비바람과 함께 천둥도 쳤지만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9시를 즈음하여 팩컴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라도 하듯 날씨가 화창해져서 문제 없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행사로 각 부서별 모든 인원이 인근 수암산 수암봉 정상에 올라 슬로건 현수막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한 후 내려오기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부서별 참여 인원수로 점수를 환산하여 종합 순위 점수를 내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이어진 이날 기념식은 최숙 팩컴AAP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경수 팩컴그룹 대표이사의 창립기념사가 이어졌다. “자가격,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며, 15년 전, 10년 전의 그 기억을 되살려 세계 속의 팩컴 Dream을 다시 한 번 이루어 봅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날 15주년을 맞이 하여 팩컴 해외영업부 창조팀 홍석준 대리가 모범사원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밖에 도전팀 김철성 부장 및 팩컴AAP 관리본부 이원성 부장이 최우수상을 수상, 정비부 백형채 부장 외 19명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기념식이 끝난 후 회사에서 마련한 뷔페 점심과 함께 가벼운 주류도 곁들인 직원들 간 소통의 시간을 보냈으며, 오후에는 2부 행사로 직원들 간 족구대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맥주 마시기, 줄 잇기,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부서별 족구 대회에서는 강력 우승후보였던 안산공장을 물리치고 제본사업 본부가 우승을 차지하여 2015년 성남상공회의소 주관 족구대회 출전권을 따냈으며, 팔굽혀펴기에서는 안산공장의 마스코트인 이강명 사원이 117회로 우승을 하였고, 윗몸일으키기에서는 해외영업부 혁신팀 주신영 사원이 46회로 우승을 하였다. 그리고 이색게임이었던 맥주 마시는 주최 측의 역발상 아이디어 게임이었는데 최종 우승은 국내영업부 비상팀의 김정규 사원이 차지하였다.

결국 오전, 오후 행사의 최종 우승팀은 안산공장으로 상금 이백만원이 돌아갔으며, 2위는 제본사업본부, 3위는 인쇄사업본부, 4위는 사무직 부서가 순위를 차지하였다. **P 이원성**





마음 따뜻한 나눔

세이브더칠드런 모자뜨기 캠페인

우간다,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등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온을 지켜주는 생명의 모자뜨기 캠페인.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털모자 뜨기에 참여 후 키트를 구매해 주세요. 초보자를 위한 일반 키트와 실만 들어 있는 실 키트,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플 키트, 필수 의약품 5종이 들어 있는 선물 키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자를 다 뜬 후에는 줄어들지 않도록 찬물로 세탁하고 잘 말려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6900-4400

www.sc.or.kr

친구가 되어준다, 비프렌드

비프렌드는 빈곤·결식아동의 이야기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명의 친구가 되어 경제적 지원 및 전문 카운슬링,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세습을 단절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마켓을 통해 팔찌형 밴드 및 스냅백 등 트렌드한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빈곤·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지원을 하거나 급식비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6261-1000

www.bfriend.org

클릭으로 그리는 행복한 세상,

해피빈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해피빈은 기부 참여하고 싶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초 온라인 기부 플랫폼입니다. 기부활동은 '콩'이라는 기부 머니를 통해 이루어지며 1개 100원으로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에 떠 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거나 글쓰기 참여 등을 통해 기업이 후원하는 콩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충전도 가능합니다.

문의 : 1588-3820,

happybean.naver.com

I can, We can, 옷캔

환경부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 옷캔에서는 유행이 지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옷으로 제3세계를 돕고 있어요. 옷캔은 단순히 옷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이 그 옷을 판매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렇게 거둔 수익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물품 구입, 교육, 식수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042-353-2739,

www.otcan.org

즐거운 겨울 축제

벽초지문화수목원 빛 축제

빙어 축제
송어 축제

**빛으로
즐거다**

2014 11. 28. ~ 2015 3월 초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166-1
장소 벽초지문화수목원
문의 031-957-2004
홈페이지 www.bcj.co.kr



파주 벽초지 문화 수목원 겨울 축제

일시 : 2014년 11월 28일 ~ 2015년 3월 초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166-1 벽초지문화수목원

1. 축제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목원은 빛이 춤추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반디불 와우 터널과 음악에 따라 빛이 움직이는 음악 정원, 아직 지지 않은 단풍을 아름답게 비추는 오색 단풍길, 너울거리는 파도와 오로라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오로라 광장, 3D입체 음향과 연등, 100만개의 오색찬란한 빛의 물결을 볼 수 있는 은하수 파도풀 등이 있습니다.

2. 빙어축제&송어축제

내 손으로 직접 빙어와 송어를 잡아 구워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은 썰매를 탈 수 있습니다. 또 인간 컬링과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 놀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www.bcj.co.kr

재미로 보는 2015년 띠별 운세!!

팍팍 가족 여러분, 올이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멋진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올 한해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며, 재미로 보는 2015년 띠별 운세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운은 마음 속에 담아두시고 나쁜 일은 매사에 신중함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개띠

금전운이 좋아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친

한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들어오는 것을 나가게 하는 나쁜 운이 될 수 있으니 주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금전운 상승세에 좋은 힘이 되는 운입니다. 금전운이 좋아 술자리가 많아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울 수 있는 해이니 평소 주량보다 적게 먹는 것으로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닭띠

말실수를 조심해야 하는 해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으나 말의 조심성이 따라야

운이 좋은 해가 될 수 있으니 말실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만 조심한다면 많은 복이 따르는 해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활발한 해가 될 것으로 사업이나 영업 등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는 그냥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니 미리 누구를 만날 때에는 말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돼지띠

마음도 피곤하고 심신도 피곤하니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모든 일을 처리

하면 좋은 운이 따릅니다. 잠시 여행을 다녀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일 처리하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잘 풀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하는 일처리는 실수를 낳게 하니 한 템포 느리게 일 처리해보세요. 날카로운 신경에 연애 운은 좋지 않으니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누구를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는 한 해로 모임이나 친구 등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풀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조력자가 있어 든든하니 걱정 없는 한 해로 생각하시면 되는 해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슨 일든 추진한다면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뱀띠

애정운이 상승세로 만남이 많고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기운도 있으니 정면으로 돌파하는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생겨도 큰 고난일수록 뒤에는 더 큰 행운과 좋은 일들이 자리 잡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테니 아무리 큰 고난일지라도 웃으며 반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나쁜 일이 있지만 나쁜 일에 2배의 보상이 따르니 항상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애정운이 좋은 시기라 아홉수의 나쁜 시기 일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후반에는 웃는 뱀띠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혼자라 생각지 말고 고난 뒤에는 엄청난 행운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범띠

항상 이성적 판단으로 침착하게 행동하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하

는데요. 오해를 받거나 기분 나쁜 일들에 억지로 해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해가 풀어지니 언성을 높여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사건사고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 친구, 주변 시비가 많은 한 해로 다투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심한 말로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하는 이성적인 해로 만들어야 좋은 운이 생깁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면 하반기에는 좋은 운들이 찾아오니 상반기에는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

언행에 있어 조심해야 하는 시기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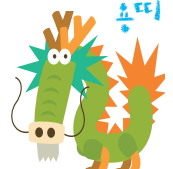
다는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듯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감정을 실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 있는 해이니 보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란 뜻입니다. 솔직함이 많은 소띠에게는 진솔한 이야기가 좋지 않은데요. 좋은 한 해를 만들고 싶다면 진심을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운이 따르겠습니다.



양띠

양띠의 해지만 분주하게 움직여도 실속이 없는 상반기로 사람을 만나도 너

무 깊게 이야기 듣지 말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은 해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처리함이 좋은 운입니다. 양띠 해를 맞아 상승세 운을 기대하셨다면 하반기가 좋은 운이니 모든 투자나 좋은 일들을 하반기에 준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자리니 괜한 힘을 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상태로 무슨 일을 벌이기보다 쉬는 것이 좋으니 하반기에 상승 운세를 기다리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용띠의 경우 애정운이 상승하여 만남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 좋은 인상을 주는 한 해니 애정운이 좋은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대시하면 좋은 운이니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대시하면 이루어질 운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애정운이 상승세라 누구에게나 대시하면 쉽게 넘어오는 시기이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거나 내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냥 새해가 온다는 마음가짐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무슨 일든 대처하시면 좋은 기회가 생기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과도 보게 됩니다. 공부하기도 좋고 사업하기도 좋고 취업도 좋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한다면 길운이 따르는 한 해가 될 테니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덕이 쌓일 운입니다.



쥐띠

내년엔 운수가 좋아생각지도 못하는 소득이 생겨기분 좋은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세라 생각지 않은 소득이 생겼다고 더 큰 이익을 바라며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2015년이니 들어온 재물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네요. 모든 부분에 넓은 시야로 사물을 보는 것이 2015년 쥐띠에게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으면서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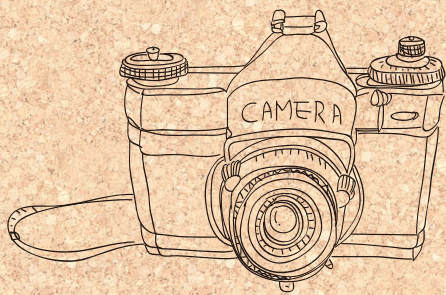


토끼띠

운이 상승하는 해로 귀인이 많은 도움을 주는 한 해가 되는 것으로 애정운과

학업 승진 등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한 해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도 좋은 운이며 금전적인 운도 좋은 한 해로 될 수도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단독적인 행동보다는 주변인과 협력해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주선영**

출처-네이버 블로그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gopacom.com





PACOM NEWS

산업 안전 재해 대비 예방교육 실시



지난 10월 1일 월례 조회 시간에는 최근 전국 산업 재해율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의 산업 안전 관리를 대행하는 '대한 산업 안전 협회'의 이선희 차장이 산업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교육은 인쇄, 제본 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PPT 강의로 50분간 진행되었으며, 직원들도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이였다

가을 맞이 공장 대청소 실시



지난 10월 6일에는 여름철 장마 등 물기를 씻어 내기 위한 공장 대청소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청소는 화재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기계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 먼지를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 공장을 밝게 해 주는 형광등, 여름철 사용한

선풍기 등 요소요소의 세심한 부분까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참여하였다. 한편 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4월, 10월 첫 주 월요일에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제본사업본부의 훈남 이선희 사원이 양가 부모님과 일가친척 및 많은 직장동료의 축복 속에 안양 범계역 웨딩 노블레스 예식장에서 신부 최은주 님과 백년 가약을 맺고 활기찬 출발을 시작하였다. 이날 결혼식은 다른 예식보다 혼잡하지 않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어 많은 하객이 참석할 수 있어 결혼식이 더욱 빛났다.

자녀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인쇄사업본부 정도진 과장의 자녀 정미선 양이 수원 J마리스 웨딩홀에서 신랑 장영화 군을 사위로 맞는 결혼식이 있었다. 신랑, 신부를 위한 주례사의 시낭송과 함께 신랑 역시 신부를 위한 시낭독을 했고 사회자의 재미난 진행이 더해져 한층 결혼식이 빛났다고 한다.

2014년 소방 화재 예방 훈련 실시



지난 10월 27일에는 팩컴 군포공장 자체 소방 화재 예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원래 군포소방서와 합동 훈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훈련 전날 군포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인한 출동 대기로 팩컴 자체 훈련으로 변경되어 실시하였다. 올 4월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비상탈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당사에서는 화재 경보 발생 후 골든타임(5분) 내에 모든 직원이 공장을 탈출하여 비상대피소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점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비부 백형채 부장(방화관리자)이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추가 교육까지 병행하였다. 훈련 당일 임원실에서는 대표이사와 함께 해외영업부 부서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참여하여 직원들의 화재 예방 훈련에 대한 의식 고취를 하였으며, 더욱이 야간 근로자의 대피훈련도 20시에 추가로 실시되어 전 직원이 주, 야간에 걸쳐 모두 실시하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탁구동호회 주관 PACOM 탁구대회 개최



10월 30일에는 회사 동호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탁구동호회에서 직원 대상

PACOM NEWS

으로 탁구대회를 진행하였다. 구내 탁구장에 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팩컴 동호회 최대의 행사였으며, 이날 대회에서는 제본사업본부 정대성 과장, 해외영업부 도전 팀의 조원근 사원이 개인별 우승을 차지했다. 자세한 기사는 팩컴 동호회 소식란을 참고하 시길 바란다.

수능 시험

11월 13일에는 2015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치러 졌다. 한편 우리 회사의 해외영업부 도전팀 김철성 부장 / PREPRESS사업부 운영봉 대 리, 이정우 대리 / 인쇄사업본부 조태성 기장 / 제본사업본부 안준 과장, 이산재 대리, 김완 수 대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봤으며, 그 동안 열심히 한 공부의 결실을 맺는 만큼 직원 자 녀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출근길 토스트 & 우유 한 잔



올해도 추운 동절기를 맞이하여 회사 구내식 당을 운영하는 이씨엠디(주)에서는 직원들의 바쁜 출근길, 아침을 거르고 오는 직원들을 위해 따스한 토스트와 우유를 나누어주는 행 사를 11월 26일 실시하였다. 출근하면서 토스 트와 우유를 받는 직원들은 활짝 웃는 모습이 었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등의 인 사와 함께 부서로 이동하는 뒷모습마저 참으 로 밝아 보였다.

AIDS 예방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지난 12월 1일은 세계 AIDS의 날이었다. 회사 에서는 이날 인쇄업계로서는 드물게 전 직원

을 대상으로 AIDS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날은 12월 월례 조회를 하는 날로, 글 로벌 인쇄 기업으로서 교육을 하고자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의 전임강사인 박인숙 강



사를 초빙 하였다. 1시 간 여 동안 PPT 강의로 AIDS의 감

염 경로 및 예방 방법, AIDS 감염률 등이 진행 되었으며, 이어서 직장인의 성희롱 예방 교육 까지 진행되어 부하 직원과 상사 등 이성 간 의 언행 및 품행 등의 기본 예절 교육까지 실 시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

지난 12월 3일은 군포보건소 주관으로 오전 10 시부터 2시간 동안 각 부서별로 선발된 직원 37명이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리



기 위한 응급 심폐 소생술 1차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 을 받은 37명의 직 원은 안산공장 8명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로 5

명 이상씩 선발되어 주간 야간 근무시 위급 사 항이 발생할 경우 119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살 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 실제 상황처럼 마네킴으로 인공호흡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시간의 추가 교육(2015 년 1월 예정) 후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직 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군포보건소 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2014년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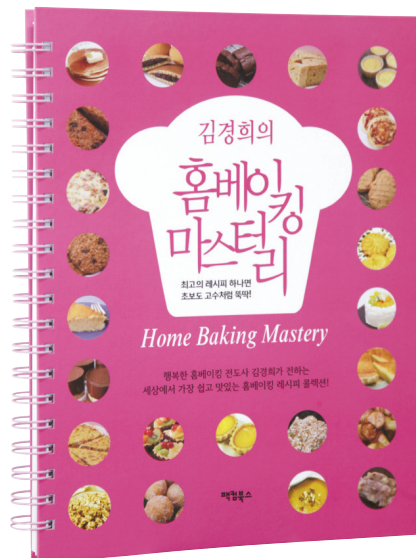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새로이 도약 하고자, 12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팩컴 그룹 워크샵이 총 75명이 참여하며 진행되었 다. 첫 날인 5일(금) 16시부터 시작된 각 부서 별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 발표는, 힘들었 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 한 부서별 결의와 다짐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 기면서까지 모두들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부 서 간 소통을 위해 올해부터는 회의 테이블의 위치를 변경하여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게 했 고 2일차 회의에서는 개인별 의견을 발표하 는 시간을 가져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 샵이 이루어졌다.



행복한 홈베이킹 전도사 김경희가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맛있는 홈베이킹 레시피 컬렉션!

계량컵 하나로 쿠키에서 케이크까지, 초보도 어렵지 않아요!

현직 외교관의 아내 '김경희'씨가 쓴 홈베이킹 완벽가이드!



팩컴북스

www.pacombooks.co.kr

다음블로그 blog.daum.net/pacombooks

트위터 @pacombooks

김경희 지음 | 가격 15,000원

Home Baking Mastery

[다른 디저트 책과 차별이 되는 이 책만의 특징]

홈베이킹 재료와 레시피 기준을 계량컵으로 간편하게!

기존의 홈베이킹 책은 레시피가 대부분 그램(g)으로 표기되어 정밀저울 없이는 만들기 어려워 디저트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책은 케이크를 자주 만드는 서구와 같이 계량컵과 계량스푼으로 누구나 쉽고 실용적으로 만들게 하였다. 계량컵도 미국식(1컵이 240ml)과 한국/일본식(1컵이 200ml)을 매 레시피마다 각각 수록하여 혼동이 없게 하였다.

쉽게 후다닥 나만이 할 수 있는 검증된 안심 레시피 수록!

복잡해 보이는 쿠키 케이크 디저트도 이미 검증된 상세한 진행 순서 사진으로 소개함으로써 초보자도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성공적인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너무 단 디저트, 방부제 들어간 디저트는 이제 그만!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건강하고 착한 레시피!

외교관의 아내인 저자가 프랑스, 미국 등 베이킹 본고장에서 배운 맛있는 레시피만을 엄선하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당도의 맛으로 개선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디저트를 손수 만들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희소식!



www.wirecomb.com

[Excellent Binding Solution]

와이어콤(WireComb)

‘와이어콤’은 사무 및 문구용품 외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 및 제책에 사용되는 고품질 트윈링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 강력하고 안정감 있는 북 바인딩 효과
-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사용으로 안전성 강화
- 무독성의 친환경적 재료 사용 (SGS 무독성 실험 통과)
-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함
- 다양한 컬러 및 사이즈 고객 주문 시 제작 가능
- 다이어리, 브로셔, 노트, 카렌더 및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에 적합



*Strong Binding, Easy & Safe,
Eco-friendly with High Quality*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발명 특허 보유



와이어콤은 트윈링이 적용된 제본 제품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커팅된 트윈링 엣지(링 끝부분)를 구부리는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특허 출원번호 제 2010-0139793 호).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는 커팅하여 날카로워진 트윈링의 끝부분을 라운드 형식으로 구부려 마감 처리함으로써 해당 트윈링이 적용된 책자 사용 시 찔리거나 다칠 위험성을 없애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장치다.

SGS 무독성 테스트 통과!

와이어콤은 소비자의 인체에 접촉되기 쉬운 트윈링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에 대해 직접 SGS 홍콩 지사에 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재료 성분에 들어있는 9가지 성분 항목에 걸쳐 시행된 무독성 여부 실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SGS는 1878년 설립되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300여개 지사에서 단일 네트워크로 시험,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검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팩컴코리아(주) 트윈링 사업부 / 홈페이지 : www.wirecomb.com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5번지 팩컴코리아(주) 안산공장 內
전화 : 031)483-3666 / 팩스 : 031)483-5857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Book^make

휴가 때 여행 다녀 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 칸에 간직해 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머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